

### 2008 광주비엔날레 개막 특별 인터뷰

아시아 최대미술축제인 2008 광주비엔날레가 5일 개막에 앞서 4일 프레스 오픈을 통해 국내외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한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상임부이사장과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으로부터 2008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들어 본다.

## “광주, 아시아 비엔날레 허브 될 것”

###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부이사장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는 아시아 비엔날레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은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13년을 맞아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부이사장은 재단이 지난 6월 광주비엔날레의 세계화와 개혁을 위해 의욕적으로 영입한 ‘문화 CEO’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미술인들이 대거 광주를 찾는 등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시아권 미술에 대한 서구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광주비엔날레의 세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에는 데이빗 엘리엇



(David Eliot)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 등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다.

그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복합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5년 이내에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육성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임 이후 이번 광주비엔날레 개막 준비를 지원하는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과거에 비해 준비기간이 2개월 가량 짧아 정상적인 개막이 우려됐지만, 제5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역임하는 등 재단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 상임부이사장의 개세로 개막 준비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는 “비엔날레가 관념적 전시에서 벗어나 광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등 도심 전체를 미술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관람객들에게는 외국인 감독이 5·18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천천히 감상하는 것도 이번 비엔날레의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 “5·18 민중항쟁에서 영감 얻었죠”

### 오쿠이 엔위저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제7회광주비엔날레는 5·18광주 민중항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올 가을 광주에서 세계 미술계가 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 첫 외국인 예술총감독인 오쿠이 엔위저는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광주’라는 공간과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 ‘현대 미술의 실험적인 작품’이 어우러져 멋진 전시가 펼쳐질 것이라는 게 오쿠이 감독의 자신감이다.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광주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시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외재미술관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고, 대인시장은 광주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면서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도심 곳곳에서 축제처럼 다채로운



전시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비엔날레가 주재라는 틀에서 벗어나 작가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했고, 초대된 작품들도 음악, 회화, 영상, 영화 등의 장르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창작된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다른 대회와는 달리 부대 행사가 없어 관람객들이 다소 따분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도된 적 없는 다양한 장르가 소개된다”면서 “모든 예술적인 영감이 광주에서 조우하고, 서로 소통하는 재미를 관람객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모든 전시와 행사를 관람객 위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역대 비엔날레들이 개막 전에 언론과 미술계에 작품과 전시 공간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함을 주기 위해 사전 공개를 없앴다는 것이다.

그는 “작품이 너무 일찍 공개되면 그만큼 관람객들이 호기심이 떨어진다”며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시민과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그들이 주인공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뮤지컬 ‘시카고’ 가을밤, 광주를 유혹한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뮤지컬이 온다.’ 관능적인 춤과 아름다운 재즈 선율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뮤지컬 ‘시카고’가 광주를 찾아온다. 10월3일~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지난 197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시카고’는 1920년대 관능적인 유혹의 도시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6개국 125개 도시에서 공연됐으며 미국·영국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인 토니상과 올리비에 상을 휩쓸며 작품성 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 10월 3~5일 문예회관 주옥같은 레퍼토리에 남경주 등 캐스팅 화려 13세 이상 관람 가능

‘카바레’, ‘피관’ 등을 제작한 뮤지컬계의 신화적 존재 밥파시가 만든 ‘시카고’가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건 무엇보다 주옥같은 음악에 있다.

연주자가 무대 아래 숨는 여는 작품과 달리 무대 중앙에 자리잡은 14인조 빅 밴드의 라이브 반주 아래 흐르는 메인 테마 ‘All That Jazz’, 두 여주인공이 함께 부르는 ‘My Own Best Friend’과 ‘Now days’ 등 22곡의 주옥같은 레퍼토리는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뮤지컬 ‘시카고’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바로 지난 2002년 영화로 제작돼 관객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리처드 기어, 캐서린 제타존스, 르네 질위거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 ‘시카고’는 아카데미상 6개부분을

휩쓸며 돌풍을 일으켰고 삽입곡을 담은 OST는 불타나게 팔렸다.

또 8세 이상 관람가인 여타 뮤지컬과 달리 13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시카고’는 관능적인 춤과 의상으로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작품 속 배경은 욕망이 들끓는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다. 재즈의 열기와 살인자들이 만연하던 시대의 미국 록 카운티 교도소에는 자극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는 죄수들로 가득하다.

남편과 남동생을 살해한 벨마 켈리는 언론의 관심을 끄는 가장 유명한 죄수. 하지만 정

부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코러스걸 록시하트가 자신의 유명세를 빼앗아가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돈을 좇는 변호사 빌리 마저 빼앗아 가지 벨마는 분개한다.

혼자서는 모든 걸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벨마는 곧 록시와 동맹을 맺고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한국판 시카고’는 ‘맘미아’, ‘아이디’를 만든 신시뮤지컬이 제작,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서울에서 한 달 넘게 장기 공연되며 화제를 모았고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대구 공연을 마친 후 광주에 상륙하게 된다.

광주 공연의 캐스팅도 화려하다. 한국 뮤지컬계의 자존심 남경주가 빌리 역을 맡았으며 ‘아이디’, ‘맘미아’의 배혜신이 여주인공 록시하트 역을 맡았다. 또 세계적인 뮤지컬 극단인 일본 ‘시카’에서 10년간 수석배우로 활동한 김지현이 벨마역으로 출연한다.

특히 김지현은 일본판 ‘캣츠’에서 그리자 벨라역으로 700회, ‘라이언 킹’에서 라피카역으로 800회 이상 출연한 극단 시카의 간판 배우로, 10년만에 컴백한 서울 공연 당시 한국팬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티켓 가격 11만원, 8만 8천원, 7만7천원, 6만 6천원, 5만 5천원. 문의 1588-0766.

/김민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MBC 문화방송

# 황산 구화산 장가계

가장 빠르고 편한 직항 전세기

다들, 대박! 문화방송 '황산·구화산 장가계' 전세기

장사(장가계) 10월 2일 ~ ₩ 749,000 (기부금 포함)

황주(황산) 10월 18일 ~ ₩ 629,000 (기부금 포함)

황산·구화산(불교성지) ₩ 849,000 =

상해, 황주, 소주 ₩ 499,000 (기부금 포함)

광주MBC 문화방송 | ☎062)226-6070